

연잎 위의 이슬방울¹⁾

김 애 양²⁾

은혜산부인과 원장

추석 연휴에 낙산사에 갔다. 6년 전 산불로 타버린 사찰은 거의 복원되어 있었다. 흥련암을 향해 오르다 보타전 앞 연못에서 발걸음이 절로 멈췄다. 활짝 핀 연꽃이 눈부신 진분홍빛을 내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화려한 연꽃보다 더 강하게 내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넓은 연잎 위에 맺힌 커다란 이슬방울이었다. 연못 한가득 두 손을 모아 펼친 모양의 연잎이 뚱뚱 떠 있었다. 그 가운데에 잎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만큼 무거운 이슬방울을 담고도 물에 빠지지 않는 연잎이 신기하게 보였다. 그 물방울이 얼마나 맑은지 온 세상을 다 비출 것만 같았다. 용이 물고 있다는 여의주 같기도 하고 동화속 엄지공주가 사는 집처럼도 보였다. 움푹한 연잎 위에서 용케도 떨어지지 않고 구르는 이슬방울이 몹시 경이로웠지만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이내 사라질 걸 생각하니 우리 삶도 것처럼 아슬아슬한 게 아닌가 싶었다.

넓은 연잎을 보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여름방학이 되자마자 어머니부터 조르기 시작했다. 집안 형편상 친구들과처럼 바닷가로 피서를 떠나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으니까 대신 식물채집 숙제를 하러 야외에 가겠다고 성화를 부렸다. 당시는 서울이나 시골이나 다름없이 길가에 풀

들이 지천이었으므로 식물채집을 위해 구태여 나들이를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학업에 관한 것이라면 쌍수를 들고 지지하는 어머니는 도시락을 싸주며 다녀오라고 했다. 오빠 손을 잡고 나선 길이 왜 그리 설레이던지...

우리는 오래오래 차를 타고 싶어서 버스종점까지 갔다. 신앙촌으로 유명한 덕소가 종점이었다. 오빠는 물가에 가야 특이한 식물을 구할 수 있다며 저수지로 날 데려갔다. 중학생이었던 오빠는 정말 모르는 게 없었나 보다. 거기엔 명아주나 쇠뜨기, 비름처럼 집 근처에 자라는 풀들 말고 여태 몰랐던 식물이 쭉쭉 자라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 가운데서 꼭 소시지처럼 생긴 풀이 눈에 띄었다. 개구리밥이 무수히 떠있는 물 속 한가운데 무리지어 서 있던 그 풀은 하도 먹음직스럽게 생겨 뿔아다가 친구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다. 오빠는 그렇게 줄기가 두꺼운 것은 마르지 않고 씹어버리기 십상이라며 포기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리며 풀을 향해 두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미끄덩한 진흙 속으로 발이 푹 빠져버렸다. 심연을 모르는 높이란 바로 그곳일 게다. 아찔한 공포 속에서 가까스로 오빠의 손을 잡고 나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멍뭉이 운동화 한 짝이

1) Rain Drops on the Leaf of Lotus

2) KIM, Ae-Yang, Eunhye Ob & Gynecology, doctoryang2@yahoo.co.kr

벗겨지고 없었다.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발 아프다고 칭얼거리는 나를 달래던 오빠는 어디선가 커다란 잎을 꺾어다 주었다. 내 온몸을 감싸고도 남을 만큼 넓었다. 바로 연잎이었다. 그걸 양산처럼 쓰고 영화 속 요조숙녀 흉내를 내며 걸었다. 그리고 버스에 오르자 내 벗은 발로 쓸리던 사람들의 시선을 충분히 가릴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꾸중까지 덮을 수는 없었다. 그 시절엔 운동화와 같은 공산품이 제일 비쌌으므로 어머니는 주의력 없이 덜렁거리는 나를 혼낼 것이 분명했다. 귀가길 내내 어머니의 음성이 귓전을 맴돌았다. 그러나 하마터면 늪에서 동생을 잃을 뻔 했노라고 오빠가 야단스럽게 변호해준 덕분에 무사히 그 하루를 넘겼다.

그 날의 결실은 훗날 빛났다. 개학이 되어 시청각실 한쪽에 우리 학급의 과제물이 전시되었을 때였다. 어떤 친구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림일기를 그려왔고 형겅에 예쁜 자수를 떠 온 친구도 있었다. 찰흙으로 빚은 동물모형과 나무판에 조각한 관화도 눈에 띄었지만 나의 수고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목숨을 걸고 채집해온 식물들을 신문지 위에 하나하나 잘 펼친 다음 다듬이돌로 꼭 눌러놓으면 납작한 표본이 되었다. 달맞이꽃처럼 꽃대가 두꺼운 것은 곰팡이가 슬어 버려야했지만 스무 가지쯤 되는 풀들은 잘 말라 저마다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름을 알아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식물도감과 백과사전을 들들 뒤져도 끝내 모르는 풀이름도 있었다. 스케치북에다 표본을 잘 붙인 다음 습자지로 덮어 마무리지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인 나의 식물채집 표본은 친구들의 감탄을 자아내어 한동안 나를 우쭐하게 만들었다.

이후로 줄곧 식물 이름들은 잊고 지냈다.

일과 성취에 매달리다보니 자연에 눈길을 줄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요행이 최근에 이사회 동네는 녹지대가 많은 지역이다. ‘서울의 허파’인 올림픽공원과 25리에 이르는 물줄기의 성내천이 흐르는 덕택이다.

43만 8000평의 올림픽공원은 청량한 공기를 내뿜고, 남한산성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강으로 흘러드는 성내천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나날이 맑아지고 있다. 사시사철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나고 검둥오리와 고니가 물러다니는 모습, 하얀 두루미가 푸른 하늘을 향해 날갯짓 하는 광경을 볼 때면 이곳이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다.

이따금 성내천가로 산책을 나갈 때에 잎을 거리를 들고 간다. 인공폭포의 세찬 물소리와 딱새 지저귀는 소리 또 풀벌레 울음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독서에 한 몫 거든다. 잉어가 헤엄치다 튀어오르는 소리에 책에서 눈길을 떼고 물살을 살펴보곤 한다.

그러다 낮익은 식물들과 마주친다. 점점 기억력이 감퇴하고 특히 고유명사가 생각나지 않지만 어릴 때 익힌 이름들은 절대 잊히지 않는다. 나를 수렁으로 이끌었던 소시지처럼 생긴 풀이름 부들. 그 위에 잠자리가 잠시 쉬고 있다. 그밖에도 줄, 방동사니, 마름, 여뀌, 고마니, 물억새 등등.

이렇게 생명체의 느낌을 강렬하게 받는 곳을 ‘습지’라 부르던가? 그런데 지구에서 점점 습지가 사라지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한다. 개발에 밀려 사라지는 습지보존을 위해 오죽하면 세계적인 보호협약이 맺어졌으랴…….

성내천가에 앉아 그런 생각을 했다. 습지는 산부인과 학문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몸 가운데 태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물론 습지를 ‘자연의 콩팥’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보았지만 콩팥은 두 개나 되고 또 여차하면 이 식수술이나 인공투석이 가능한 장기인 반면

태반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생명력을 간직한 곳이므로 습지는 태반에 비유하면 좋으리라. 해변처럼 생긴 태반은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뤄지는 곳이고 또 포도당을 간직하는 장소이므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 태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가늠해보면 습지의 중요성이 명확히 머리에 들어온다. 요즘은 태반으로 주사약까지 만들면서 왜 자연에서 태반 노릇을 감당하는 습지의 중요성은 간과되고 마는 것일까?

얼마 전에 생태 문학을 다룬 ‘적색에서 녹색으로’란 비평집을 보았다. 거기에 영국 과

학자 제임스 러브록이 말하는 지구의 자정 능력에 대한 설명이 있다. 지구는 생물과 대기, 바다와 육지로 구성되었다는 것과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생물이 살아가는 데에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는 자기조절기능을 갖춘 거대한 체계가 지구라는 이론이다. 그러나 인간이 지나치게 오염물질을 배출한 나머지 이제 그 자정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지적한다. 더하여 비관론적 과학자들은 지구가 앞으로 50년 이상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더 섬뜩하게 표현하면 2050년경에 지구는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돌덩어리가 된다는 예견이다. 정작 연잎 위의 이슬방울만큼 위태로운 건 지구인데 그 위에서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